

갈보리 소식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2011 교회표어: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숙하는 교회 (행6:4)

① **창립주일:** 오늘은 교회 창립 12주년 주일입니다. 교회를 허락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모든 성도들과 함께 축하합니다. (설교: 이철중 목사, 펠번 YWAM BE DTs 스크리더)

② **음악축제:** 창립감사 음악축제를 오는 7월 20일(수)에 갖습니다. 개인, 기관 참여 신청 바랍니다.

③ **모임:** 안수집사와 당회원 연합모임이 3시 50분 부터 계수실에서 있습니다.

④ **예배:** 오늘 2부 예배는 연합예배 관계로 드리지 않습니다.

⑤ **캠프:** 아동부 겨울 성경 캠프가 오는 15 (금)-16일(토) 교회에서 있습니다.

⑥ **갈보리 장터:** 이번 주 성전 건축헌금을 위한 갈보리 장터 코너는 골프화입니다. 필요하신 성도들은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기증하실 물품이 있는 성도는 기증하시기 바랍니다.

⑦ **감사:** 꽃꽂이로 성전을 장식해주신 이순옥집사, 음식 준비하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⑧ **월례회:** 2남, 3여 선교회 월례회가 식사 교제 후에 있습니다.

⑨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교회 1층 Chapel실에서 있습니다.

갈보리교회 선교지

해외 선교지

- ▷ 루마니아: 김유정선교사 (집시사역)
- ▷ 중국: 김강한목사 (탈북자사역)

국내 선교지

- ▷ City Mission 섬김
- ▷ 밀알장애우 봉사

7월 교회일지

창립기념 감사주일:

7월 10일 (주일)

성경캠프 (아동부):

7월 15-16일 (금, 토)

창립감사 음악축제:

7월 20일 (수요일)

교우 소식

등록: 이 옥화 (박송이, 명석) 328/184 Citta APT Symond St. 021-295-1287 구역: 이집트 공동체


7월 예배담당 안내

1부기도	2부기도	수요기도	1부예배 안내	새신자 안내	주차안내	주방봉사
3일 박덕철	진혜령	정진택	고성일/김봉희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옥	정희자/한상순/김재연
10일 박병민	방명아	김휘열	고성일/김봉희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옥	정희자/한상순/김재연
17일 이동술	원미경	남영수	고성일/김봉희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옥	정희자/한상순/김재연
24일 최득수	최장한	민광호	고성일/김봉희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옥	정희자/한상순/김재연
31일 정덕수	김성희	민선희	고성일/김봉희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옥	정희자/한상순/김재연

갈보리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이태한	시무장로/ 김영길	이광희	은퇴장로/ 김교섭, 박일영
부목사/ 심창진	김관영, 현석호	정덕수, 최재학	
교육전도사/ 진혜령	지휘/ 신경화	유승재, 박제용	
	반주/ 송민영, 유지선		





창립 12주년 기념예배

갈보리 교회 목표
하나님 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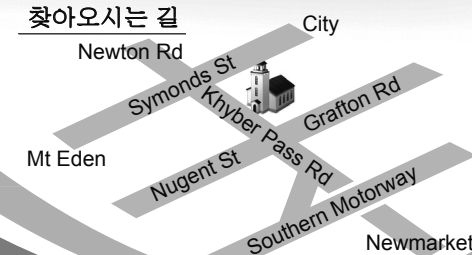
갈보리 교회 비전

1.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
2.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는 교회
3.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2011 교회표어: (사도행전 6:4)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숙하는 교회

찾아오시는 길



예배시간안내

주일1부예배	주일	PM1:00	본당	유아부	주일	PM1:00	유아실
주일2부예배	주일	PM2:45	본당	아동부	주일	PM1:00	Chapel
수요예배	수요일	PM7:30	본당	중고등부	주일	PM1:00	별관
새벽기도	금요일	AM5:50	Chapel				

2011년 7월 10일

주보 13권 28호

www.calvary.org.nz

St David's Presbyteri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Ph: 09 - 369-5077

주일 예배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전주	반주자	
예배의 부름	시100:1-3	인도자
개회송	찬양대	
참회의 기도	다함께	
*찬송	35장 (구 5장)	다함께
*성시교육	109 (66)	다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교회의 발자취	문서선교팀	
찬송	261장 (구 195장)	다함께
대표기도	박병민집사	
성경봉독	이사야 43:1-7	인도자

1.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3.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4.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5.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6.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7.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찬양대찬양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교	하나님의 사랑	이철중 목사
찬송	208장 (구 246장)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응답송	주기도문 송	다함께
*축도	이철중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순서안내 | 다음주 기도: 이 동술 집사 7월 24일: 최 득수 집사

설교 메모

흘러들어오면서 다음세대를 키우지 못해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교회만 해도 오늘 유럽의 교회가 처한 현실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줄어든 교인수 때문에 교회 관리를 렌트비로 충당하고 있는 아픈 현실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년 전부터 교인수가 줄어들고 교회 학교와 중, 고등부, 청년부가 성장하지 않는다고 야단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숫적인 부흥에만 힘을 기울렸지 사람을 키우고 양육을 하는데 등한시했음을 냉철히 반성을 하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양육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창립 12 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교회의 모든 사역방향이 사람을 키우는데 모아져야 할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동역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성전 건축도 우리 장년들은 혹 불편하더라도 교회학교를 중점에 두고 그들의 환경에 맞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폰과 페이스북의 흐름을 거스릴수 없는 영상시대에 사는 다음 세대들에게 왜

복음이 우선이며 전부인가를 교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대일 대면을 통한 말씀 선포입니다. 영상은 흘러가면 그만이지만 말씀은 영원하며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말씀이 우월하다는 사실을 그들이 스스로 깨닫는 가르침과 교육을 할수 있는 장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내년이 좋은, 교회 10년 후, 30년 후 100년 후가 좋은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가야 하고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모든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5년 후 12년 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년이 되었을 때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가 되어 있을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삶의 무거운 짐을 혼자서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찬 세대들이 교회를 더 교회 다운 교회로 개혁시켜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이태한-

지난 교회 표어 돌아보기

1999년 가서 너희도 이와같이 하라 (누가복음 10:37)

2000년 주일 중심에서 매일중심으로

2001년 QT하는 갈보리 교인

2002년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

2003년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2004년 바보같은 교회

2005년 돈으로 살 수 없어 사랑으로 얻었다 (요한복음 13:35)

2006년 지금보다 조금 더 시간 내는 기도생활 (마태복음 7:8)

2007년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13)

2008년 밀줄치며 읽는 성경! 보혈의 능력 (히브리서 4:12-13)

2009년 말씀을 읽었으니 말씀의 증인되시다 (누가복음 24:48)

2010년 오직 예수, 오직 구원 (사도행전 4:11-12)

2011년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숙하는 교회 (사도행전 6:4)



건축헌금

지난주: \$500.00

총계: \$597,767.19

창립 12주년 특별기고 추억의 단상들 - 김교섭 장로

단상 1

12년전 창립예배 광고의 끝부분입니다.

“누가 교회 창립하면서 꿈이 무엇입니까?”라고 묻는다면 아직 고상한 답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오클랜드에서 가장 큰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밖에는 할말이 없습니다. 너무 속물 근성에 젖어 있는 목사라고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실 겁니다. 창립 예배인데도 목사 아빠 체면 봐주지 않고 설교 시간에 잠든 10살짜리 아들을 보며 얼마나 재미 없는 설교면 잠이 들었을까? 하며 자책해 봅니다. 축하해 주려 오신 주님의 교회 장로님 한가족과 저희 가족만 드린 창립 예배. 넓은 예배당에 점하나 찍어 놓은듯 합니다. 텅빈자리, 텅빈마음..

- 1999년 7월 한국신문 창립예배 광고

단상2

Samoa church를 떠나 2001년 2월 4일 Khyber Pass Rd에 있는 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에서 영성이 넘치는 이전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의 뜻에 따라 제가 Roger Hill 신부님과 교회 멤버들을 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참석 인원은 13명, 마침 신부님이 제 옆자리에 있었습니다.

심도있는 기도로 제 내면을 가다듬으며 신부님에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드렸더니 호쾌하게 웃으시며 “당신들의 교회도 우리들의 교회도 아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부담없이 사용하십시오” 말씀하셨습니다. 사용료는 월 \$300 송구스런 마음에 \$100 더 드렸더니 한사코 거부하시고는 오히려 목사님 사무실과 교회 살림방도 사용하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가슴이 터질듯한 감동! - 할렐루야!

단상 3

두번의 안수집사와 권사, 장로 장립식, 교회식구들의 환희에 넘치는 축하속에 빈틈없는 진행 마치 드라마에 나오는 한편의 결혼식 장면이었습니다. 늘 부족하기만한 나는 한 견에서 조용히 숨죽이며 기도 드렸습니다. 주여, 새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청지기 의식을 각인시켜 주소서 그들을 통해 영광받으소서.

단상 4

2002년 6월 29일 물심양면으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던 Roger Hill 신부님이 군목으로 이임하게 되어 새로 부임한 로이더 신부님은 우리를 당혹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예배 중 개를 데리고 강단에 돌아다니는 사람,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교회문을 잠그겠다고 덜그덕 거리는 사람, 교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장시간 사용하여 우리교인들은 밖에서 한시간 기다리게 하는 일이 예사였고 사무실과 방을 다 빼앗기는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한없이 출기만 했던 고난의 시간들, 그런데 그때 우리들의 기도는 뜨거웠습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 홍해를 건너 미디안 광야를 방황하던 옛 믿음의 조상들의 고난의 행군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강단의 말씀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12주년 창립기념주일을 맞아

“점점 그리움이 짙어집니다”

첫 예배를 드린 후 아내와 교회 정리를 하고 나서 집에 돌아온 12년 전의 그날은 그냥 평소의 주일처럼 그랬습니다. 사진 한 장 남길 생각도 없었고(그때까지도 저희 집엔 그 흔한 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축하 케익을 자르는 것조차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인 양 교회 대문 잘 걸었는지 확인하고 무뎠뎠히 돌아왔던 날이었습니다.

지나와 지금 돌아보니 그 또한 요란한 형식에 물들지 않으려는 갈보리교회 정신의 시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교회성장을 위해 야심찬 프로그램 하나 준비하지 않고 시작한 것은 저의 게으름이고 준비되지 않은 목회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한 번도 조금함이나 어둡지 않고 기대에 찬 희망이 있었던 것은 말씀 준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말자는 다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름이 알려진 갈보리교회로, 넓은 예배당 안에 빈자리 보다 성도들이 앉은 자리가 더 많아진 모습에 “내가 이런 목회능력을 가진 목사가 아닌데!” 하며 나도 놀랐습니다. 그것은 오직 더 세상의 빛이 되어 달라시는 갈보리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몇 일전 30층 짜리인 서울의 “테크노마트” 빌딩이 흔들려 3일 동안 빌딩이 폐쇄된 것이 특뉴스였습니다. 그러다가 안전 진단 후 엇그제 다시 열었습니다. 모두들 삼중 백화점이 연상되어 출입하지 않는 그 곳을 출입 허가된 다음 날 교회 부목사님 세분과 점심식사를 하러 일부러 테크노마트 Food Court에 갔습니다.

예상대로 썰렁한 분위기에서 식당 주인의 환대를 받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주인이 어느 대형교회의 권사님이어서 반갑게 인사하며 “이렇게 어려운 데를 일부러 찾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라는 말에 진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교회에는 수십 명의 목사님이 계시는데 위로 전화 한 통 없는 것에 내심 섭섭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교회로부터 큰 것 바라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작은 위로를 바라며 교회에 큰 애정을 품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교우들의 모습은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갈보리교회는 그렇게 수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하늘의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하기 위해 12년 전 오늘 세워졌습니다.

이제 이태한 목사님과 함께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가 서로 섬기며 위로해 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품은 갈보리교회가 계속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2년 전 이맘 때쯤 저 혼자 훌쩍 한국으로 돌아와 2년을 지내는 동안 갈보리에서 품었던 그 열정을 한시도 잊은 적 없습니다. 아직도 그 순간, 그 얼굴 모두 가슴에 담고 혼자만의 비밀스러운 즐거움으로 음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리움은 짙어집니다.

오늘 12주년을 맞는 갈보리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로 빛나기를 기도합니다.

망우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Calvary History 1999 - 2011



12년전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사모안교회



창립 7주년 기념예배에서 나무십자가 성가대



2006년 안수집사 장로 임직식 때



◀ 2005년 수요찬양단, 정관영장로님, 황경임집사님 얼굴이 보이네요. 다시 한번 수요예배 찬양단으로 컴백하심이 어떨실런지..



▲ Auckland Girls' grammar 시절, 2007년 성탄축하공연 학교강당이어서 교회분위기가 나진 않았지만 주님께 성전건축을 더욱더 기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2009년 전교인운동회 후

지금 교회 맞은편에 있는 Church of Holy Sepulchre 시절, 출근해도 정말 멋진 교회였는데..



2010년 야외예배 후, 자기사진 찾아 보세요

갈보리 교회의 미래



우리 갈보리 교회는 개신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개혁 교회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Reformed Church라 합니다. 개혁이란 본래로 돌아가는것,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매일 새로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중세교회(카톨릭)의 타락에 맞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카톨릭과 구별 하자는 의미에서, 또한 교회가 타락하지 않으려면 늘 변화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고 지칭했던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12주년인 동시에 13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날입니다. 흔히들 예수 10년이상 믿으면 변질되고, 교회도 10년 넘으면 비뚤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12주년을 맞으면서 성경으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 다와지는 교회에 대해 알아보면서 우리 모두 초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고 교회 다와지기 위한 길을 '교회' 라는 말의 뜻을 통해 살펴봅시다. 교회란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라고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불러내었다' 입니다. 사람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 내시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누군가가 교회를 세운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곧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움직여야 하고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바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은 몸입니다. 몸은 손, 발, 귀, 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머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행동합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길입니다. 신앙생활을 수년 하다보면 초심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감동에 의한 신앙생활 보다는 내 경험으로 내 신앙적인 관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려 할 때가 있습니다. 의도적이지는 않다해도 타성에 젖다보면 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되고, 그런 형태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각인 되어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하는 고민 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버리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도 받기도 합니다. 때문에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 이시다는 사실을 늘 되뇌이며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성경적인 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교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삼년 동안 양육 하셨습니다. 그 열두명의 제자들은 여러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원하신대로 복음전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라는 걸출한 인물들을 키웠습니다. 교회안의 어떤 훈련도, 프로그램도 사람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유럽의 교회는 사람이 없어 박물관이 될 형편에 처해있고, 나이트 클럽이나 술집으로 팔리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미국도 청교도 때문에 초 강대국이 되었으나 1960년대 이후 자유주의 신학 조류가

성시교독 109 (구 66)

여호와와 집 우리 여호와와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회생을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다같이)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오후 7시 30분

찬양	수요찬양단	다함께
기도		김휘열집사
성경봉독	계시록 22: 13-21	다함께
설교	어서 오시옵소서	이태한목사
찬송	176장(163장)	다함께
합심기도		인도자
광고		인도자
찬송	179장(167장)	다함께

애찬 기도: 한상순집사 다음 주 기도: 남영수집사



수요예배

갈보리 금주 기도 제목

- | | |
|--------|---|
| 환자를 위해 | 1. 2차 항암치료를 시작한 기섭 형제가 고통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도록
2. 영육으로 고통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유함과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
| 교회를 위해 | 1. 창립 12주년을 맞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속에 성장 성숙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이루어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2. 성전 건물 매입에 모든 성도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로 다음세대를 위한 성전이 세워지도록 |
| 선교를 위해 | 1. 뉴질랜드의 한인교회들이 지역사회를 헌신적으로 섬김으로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되어 구원을 얻도록
2. 여러 선교단체들이 교회와 잘 연합하여 십자가의 복음안에 담긴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

창립 12주년에 부쳐 - 이태한 담임목사



강산도 변하기에 충분한 열두해,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제자 열두명, 12년을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성, 교회 창립 12주년, 12라는 숫자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익숙함으로 다가오는 오늘입니다. 여기까지 있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 교회도 다를바 없는, 여느 교회처럼 한두 가정이 모여 하나님만 의지하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섯살 짜리 코흘리개가 잔병치레와 성장통을 할 때면 저미는 온 가슴으로 받으면서도 청년이 되기 위해서는 기필코 겪어야 하는 것임을 알기에 묵묵히 지켜보던 부모들처럼 교회가 자라면서 이런 저런 잔병치레와 성장통을 겪을 때면 교회의 한모퉁이 어디서인가 그것을 기도와 눈물로 토해낸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열살먹은 수줍았던 아이가 어느덧 산고의 고통속에 생명을 내어 놓으면서 애기 엄마가 되어가듯 생명을 잉태해야 하는 교회도 여러번의 해산의 수고와 함께 성장, 성숙해 갔습니다.

꽃다운 새 색시가 시집살이의 엄동설한과 함께 어느덧 거울 앞에 선 내 누님 같은 중년의 세련미가 있듯이 무지한 사람들의 설익은 믿음의 엄동설한을 비껴가지 못해 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기 위한 성령님의 은혜요 다루심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곱씹고 곱씹으며 헌신이라는 옥합을 채워 온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바람으로 흔들릴 때마다, 제길을 알지못하고 결 길로 갈때 마다 그 분의 아파하는 손길이 보이지 않게 붙드셨고 바로 잡아주셨기에 우리 교회가 오늘이 있고 그래서 그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오늘입니다. 내 영혼이 안식을 누릴수 있는 곳, 내 인생의 탄식과 한숨을 내 뱉을수 있는 곳, 교회는 내 삶입니다. 이 교회가 있음이 행복이요 감동입니다. 이 행복과 감동을 기뻐하는 오늘입니다.

역세계 길지도 그렇다고 결코 짧지만은 않은 열두해의 촌각들 속에서 삶의 한 가운데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놓은 개척자 전임 목사인 김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무명의 여러분들에게 열두해를 맞는 오늘에 후임 목사가 고마움의 박수를 마음껏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단상 5

Auckland Girl's Grammar School Hall의 을씨년스러운 학교 강단 예배 2년 후 2009년 4월 19일 St. David's Church에서 이전 예배, 2011년 7월 오늘까지 첫마음(初心)을 잃지 않는 우리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연단해두신 준비된 목자 이태한 목사님을 리더로 또다른 비약을 꿈꾸며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여년 전 30여명의 성도가 머그컵 30여개가 든 Box 하나 들고 기도처를 찾아 방향했던, 때를 생각하면 마치 G20나 평창 동계 올림픽을 유치한 한국의 위상이 대견스럽듯 오늘의 우리 공동체가 대견스럽기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또 다른 확신! - 주께서 우리에게 성전 건축의 사명자 느헤미아를 주시리라!

단상 6

12년 세월속에서 헤어진 교우들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모골이 송연한 참담함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통스러운 이민생활에 한국으로 돌아가셨고, 어떤 분들은 생활 터전의 변화로 또는 우리들의 사랑 결핍으로 떠나갔습니다. 어차피 영원한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변명해 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런 인간적 논리는 분명 이윤배반이며 죄악입니다. 영원한 은혜를 구원받은 우리가 영원 자체를 거부하는 모순것처럼.

단상 후기

“주인”이라는 말과 “소유자”라는 말은 다릅니다. 주인은 “Owner”라고 하고 소유자는 “Possessor”라고 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본적인 주인이시며 인간은 임시 소유자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기독교인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듯 “청지기 의식의 상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지탄을 받는 구체적 원인임에 틀림없습니다.

제 자신을 비롯해 직분자들이 이런 근본적인 자기 위치를 깨닫고 인간과 재물(돈, 권력) 사이의 진정한 관계를 정립할 때 기독교가 비로소 그 “잔맛”을 발휘할 수 있게 될겁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성숙해가기를 12주년을 맞는 아침에 소망해봅니다.

끝으로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40여년전 토요일밤 엄동설한에 사업적 고뇌로 기도라도 하고 싶어 우연히 교회에 들린 K집사가 캄캄한 어둠속에 십자가 있는 벽면을 향해 차디찬 맨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한 목사님을 보고 너무 안스러워 그의 거위털 외투를 가만히 어깨에 걸쳐드렸다.

주일날 아침 예배 후 영락교회 우측 백 병원쪽 문을 나서던 K집사는 깜짝 놀랐다. 주일이면 언제나 문옆에서 땅에 엎드려 구걸하는 장님 걸인의 어깨에 K집사가 한 목사님께 드린 그 외투(그때만 해도 최고급 제품에 속했다)가 입혀져 있던 것이다. 집에 오는 내내 K집사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나와 내가족,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청지기 의식이 회복되는 눈부신 날들이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행전 4장 32절



축하합니다!! 갈보리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